



제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공식 포스터

제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거리 문화축제 기반 형성한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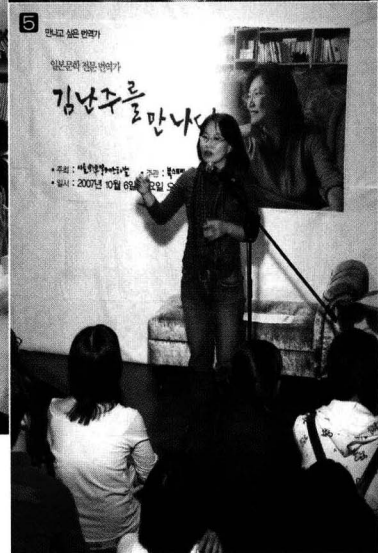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사)서울와우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제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지난 10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난 지적으로 논다! -쉽지! 즐겁지! 윤패하지!' 슬로건 아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개최됐다. 2005년 한국출판인회의 주최로 열렸던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올해 사단법인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조직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다양한 부대행사와 거리 도서전을 진행했다.

작년 대비 30% 늘어난 63여 출판사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와 주차장 골목 등지에 부스를 마련하고 출간 도서 전시, 판매를 통해 독자를 만나면서 활기찬 거리 도서전을 연출했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이채관 조직위원장은 "단독 법인회를 통해 독립적 축제 조직으로 자리잡았고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확고히 한

서울와우북페스티벌



- 1 2** 권정생 선생님 그림책 낭독 릴레이 + 극단 숨은 그림의 '꿈꾸는 종지귀 권정생' 지난 5월 17일 타계한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 선생의 그림동화를 함께 읽어보는 행사. 강이지용, 아기사나무와 권정생 동화나라, 황 소아저씨 등을 낭독. 권정생 선생을 기리는 공연 책을 소재로한 마임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 숨은그림이 낭독 릴레이에 앞서 권정생 선생의 다양한 그림동화 캐릭터를 마임으로 표현했다.
- 3** 스타츄마임 거리 퍼퍼먼스 '책 읽는 조각상'
- 4** 낭독의 밤 - 소설가 김애란과 시인 황병승 젊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 서로의 작품에 대한 거침없는 평가를 통해 현대 한국 문학 경향과 독자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5** 만나고 싶은 번역가 - 일본 문학 전문 번역가 김난주와의 만남 일본 소설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번역가 김난주와의 만남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일본문학 번역의 흐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어 대화, 사인회를 진행했다.

의미 있는 해"라고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저자와의 만남이 이뤄진 <와우북판타스틱서재>, 책을 통한 예술과 문화의 변화를 시도한 <와우북-상상만찬>, 열린 공간에서 책 읽는 재미를 선사한 <거리로 나온 책> 등 3가지 큰 행사 속에 총 4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거리의 젊은 독자층뿐 아니라 1, 2회 행사에 참여했던 독자들이 다시 축제를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에서 북페스티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채관 조직위원장은 "구입한 책을 갖고 가기 위해 여행가방을 들고 온다거나 행사 기간을 기다렸다가 찾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축제 마니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아이들과 함께 거리도서전을 찾은 한 주부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나들이 삼아 나오니 좋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판사 관계자들도 "독자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스를 찾는 독자들의 관심이 최근 출판계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소설 전문 출판사 부스가 성황을 이루면서 일본 소설에 대한 독자의 꾸준한 관심이 입증되는 한편 중국 및 아시아 문학을 출간하는 출판사 부스도 오고가는 방문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올해 행사를 점검, 평가하고 내년부터 해외 출판계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책문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44**